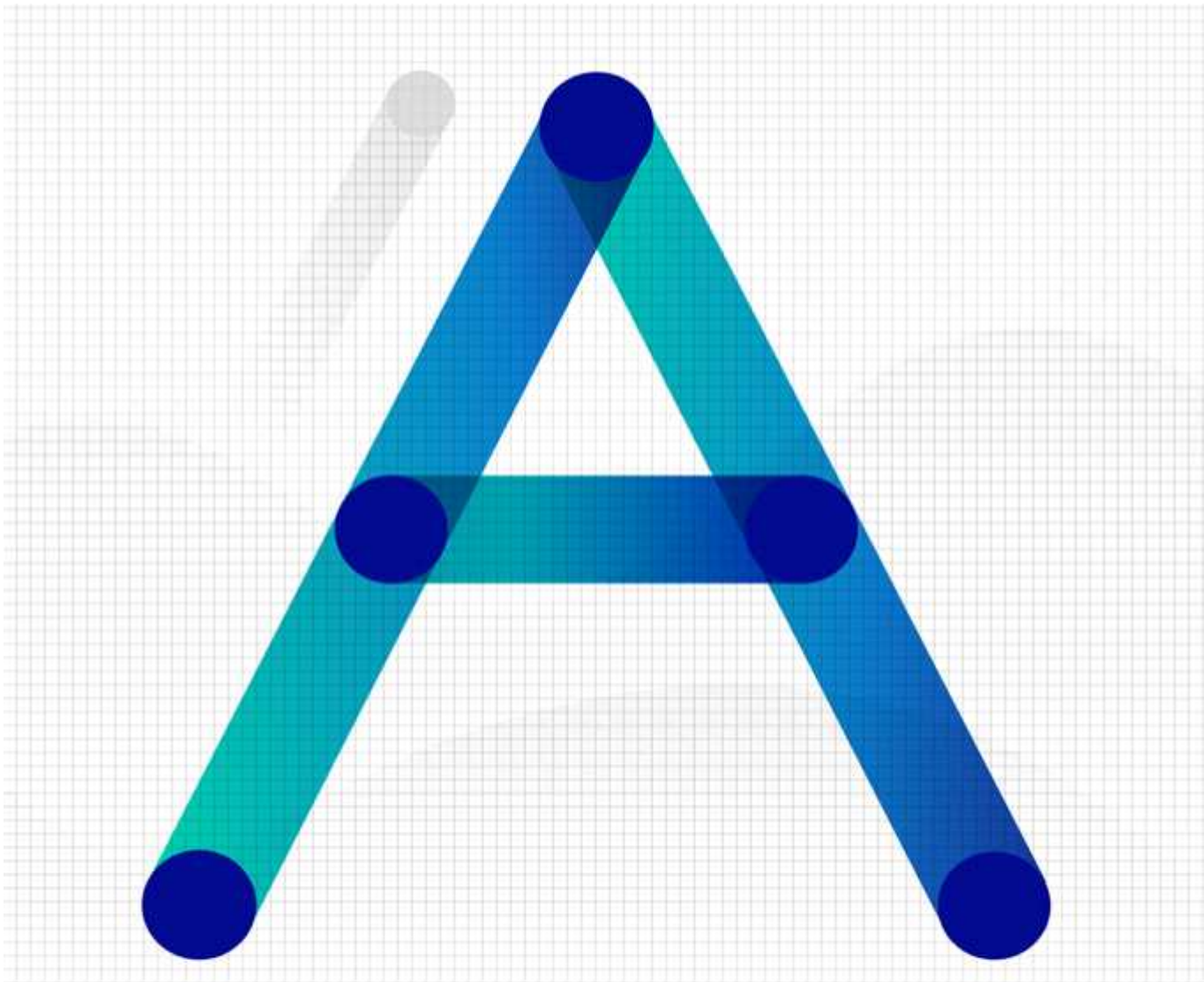
2022 SEMI-ANNUAL REPORT

VOL.2022-자동차 2호(2022.10)

자동차산업 2022년 상반기 동향

I.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II.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1. 자동차 판매량
2.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3. 주요시장 동향
III.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1. 국내 생산 및 판매 현황
2. 수출 현황
3. 국내 완성차업체 동향
IV. 시사점 및 전망

작성
책임연구원 김호건 (02-6252-3610)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 요 약 >

I.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3,930만대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코로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로는 2.6% 증가한 수치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며 향후 생산량 증가 전망

- '22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 순위는 토요타그룹(483만대), 폭스바겐그룹(383만대), 현대차그룹(324만대), 스텔란티스(316만대), GM그룹(294만대)

- 유럽 완성차 업체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완성차 업체는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 받았으나 조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자동차 부품 공급난으로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생산 차질 발생

II.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견조한 수요에도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감소한 3,784만대이며 중국 봉쇄 영향으로 전기 대비로도 0.3% 감소하였으나 향후 봉쇄 완화 및 생산량 증가에 따라 판매량 증가가 전망됨

- '22년 상반기 주요 지역별 자동차 판매량 및 비중은 중국(1,205만대, 31.8%), 미국(707만대, 18.7%), EU(519만대, 13.7%), 인도(240만대 6.4%), 일본(208만대, 5.5%) 순으로 5개 지역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76.1%를 차지

- 주요 5개 지역 중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기 대비 증가하며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으며, 중국의 봉쇄조치도 완화됨에 따라 하반기 판매량 증가가 전망됨

2022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8.0% 증가한 697만대로 2020년 상반기 이후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판매량 증가 전망

-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로 전년동기(12.1%) 대비 6.3%p 확대

- '22년 상반기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순수전기차 309만대, 하이브리드 172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11만대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84.3%, 17.2%, 38.0% 증가

III.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국내 생산·판매) 2022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한 178만대이며 판매량은 10.9% 감소한 80만대이나 반도체 공급난 완화 등으로 하반기 생산 및 판매량은 증가할 전망

- (생산) '22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178만대로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공급 차질로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전기 대비로는 8.0% 증가
- (내수) '22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전년도 높은 판매량에 의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한 80만대

(수출) 2022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243억 달러이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42.6% 증가한 73억 달러이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수출 여건 악화 우려

- '22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한 107만대이며 수출단가 상승 및 친환경자동차 수출 확대 등으로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243억 달러

IV. 시사점 및 전망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공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전망

-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세제혜택 연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나 국내 완성차 업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의 지원정책 연장으로 중국 친환경자동차 업체의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며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BYD, SAIC, Xpeng, NIO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품 단위 수출 후 미국에서 조립하는 녹다운(Knock Down) 방식 등도 고려 필요

I.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3,930만대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코로나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로는 2.6% 증가한 수치로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며 향후 생산량 증가 전망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지속,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도시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

- '22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 순위는 토요타그룹(483만대), 폭스바겐그룹(383만대), 현대차그룹(324만대), 스텔란티스(316만대), GM그룹(294만대)

* 전년동기 대비 생산량 증가율: 토요타그룹(△3.0%), 폭스바겐그룹(△10.9%), 현대차그룹(△2.2%), 스텔란티스(△8.2%), GM그룹(+2.2%)

- 유럽 완성차 업체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완성차 업체는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 받았으나 조달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자동차 부품 공급난으로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생산 차질 발생

- '22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 주요 지역의 생산량 및 비중은 중국(1,211만대, 30.8%), EU(581만대, 14.8%), 미국(502만대, 12.8%), 일본(364만대 9.3%), 인도(267만대, 6.8%) 순으로 5개 지역이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74.4%를 차지

- 중국을 제외한 주요 5개국의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에 따라 전기대비 증가추세

* 전년동기 대비 생산량 증가율: 중국(△3.7%), EU(△14.8%), 미국(+6.0%), 일본(△12.9%), 인도(+19.7%)

* 전기 대비 생산량 증가율: 중국(△10.2%), EU(+11.2%), 미국(+14.2%), 일본(+1.3%), 인도(+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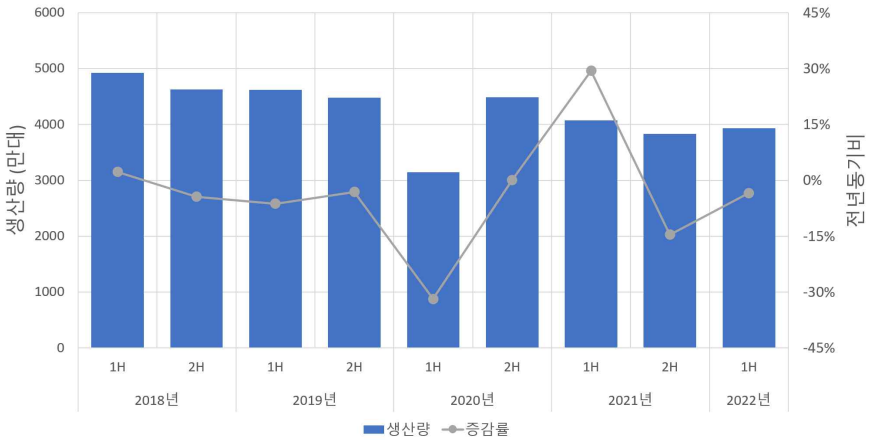
- 중국의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시안, 상하이 등 도시가 봉쇄되면서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하였으나 봉쇄 완화에 따라 6월부터 이전 수준을 회복

* 중국 자동차 월평균 생산량 (만대): ('18) 231 → ('22 1Q) 216 → ('22 2Q) 188 → ('22.6~8) 245

- '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반기 러시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56.8% 감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낮은 생산량을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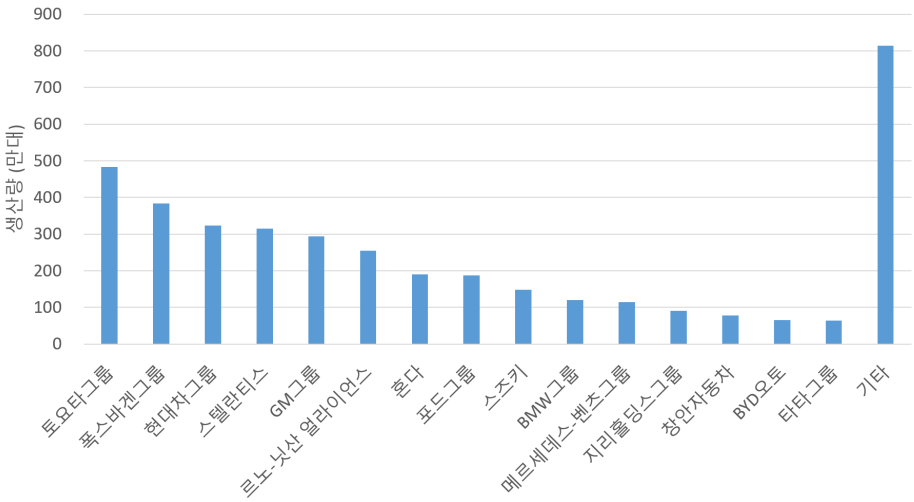
* 러시아 자동차 월평균 생산량 (만대): ('18) 15 → ('22 1Q) 10 → ('22 2Q) 2 → ('22.7) 3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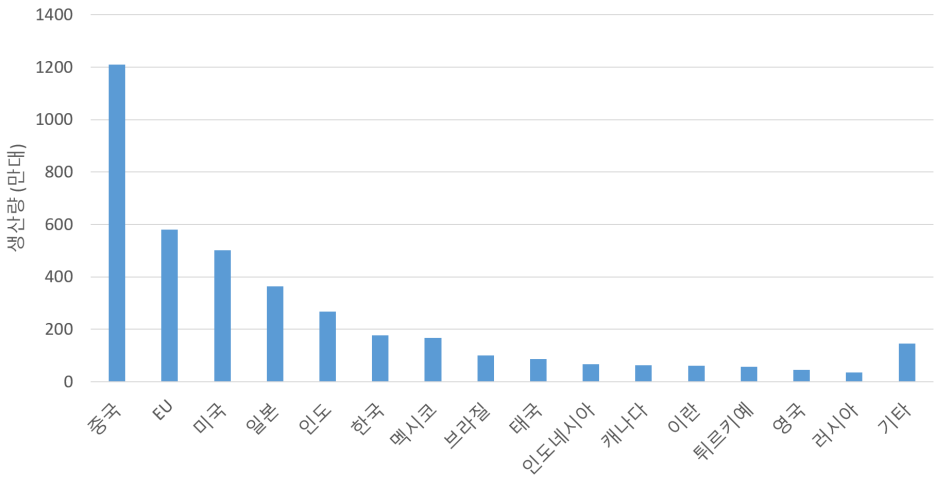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업체별 '22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



자료: MarkLines

국가별 '22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



자료: MarkLines

II.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1. 자동차 판매량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견조한 수요에도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감소한 3,784만대이며 중국 봉쇄 영향으로 전기 대비로도 0.3% 감소하였으나 향후 봉쇄 완화 및 생산량 증가에 따라 판매량 증가가 전망됨

- '22년 상반기 미국 및 EU의 중고차 가격지수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25.8%, 9.6%가 상승하는 등 높은 수요에도 부품 공급난 등 자동차 생산 차질로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9.6% 감소

* 상반기 전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미국 8.3%, EU 7.7%

- '22년 8월 미국의 중고차 가격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7.8% 상승에 그치며 공급망 완화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 주요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경제분석국(BEA)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상반기 승용차 재고[1]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견조한 수요를 보임

* 미국 6월 승용차 재고(만대): ('19) 69 → ('20) 45 → ('21) 20 → ('22) 9

- '22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 순위는 토요타그룹(470만대), 폭스바겐그룹(370만대), 현대차그룹(308만대), 스텔란티스(292만대), GM그룹(265만대)

*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율: 토요타그룹(△8.6%), 폭스바겐그룹(△17.4%), 현대차그룹(△10.9%), 스텔란티스(△16.2%), GM그룹(△16.4%)

- 현대차그룹은 반도체 공급난 대처 및 미국, 유럽 시장 판매호조 등으로 토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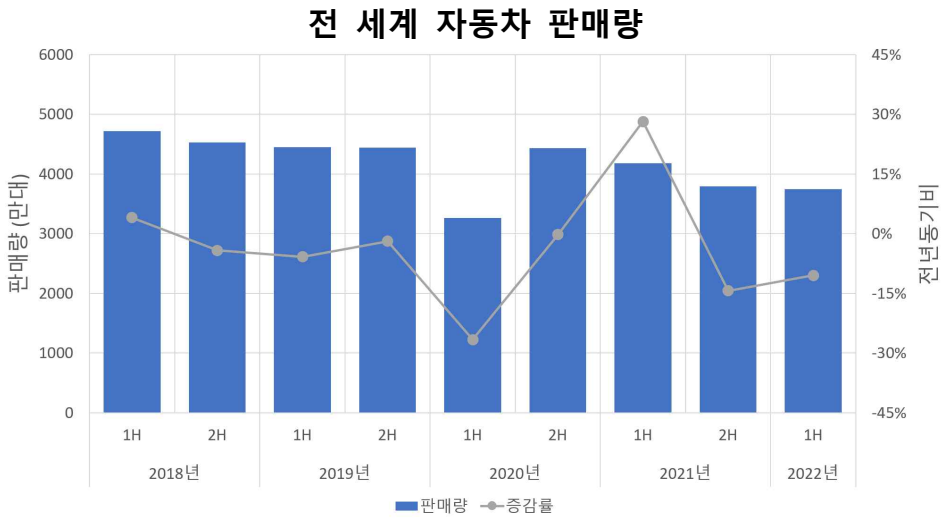
- '22년 상반기 주요 지역별 자동차 판매량 및 비중은 중국(1,205만대, 31.8%), 미국(707만대, 18.7%), EU(519만대, 13.7%), 인도(240만대 6.4%), 일본(208만대, 5.5%) 순으로 5개 지역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76.1%를 차지

- 주요 5개 지역 중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기 대비 증가하며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으며, 중국의 봉쇄조치도 완화됨에 따라 하반기 판매량 증가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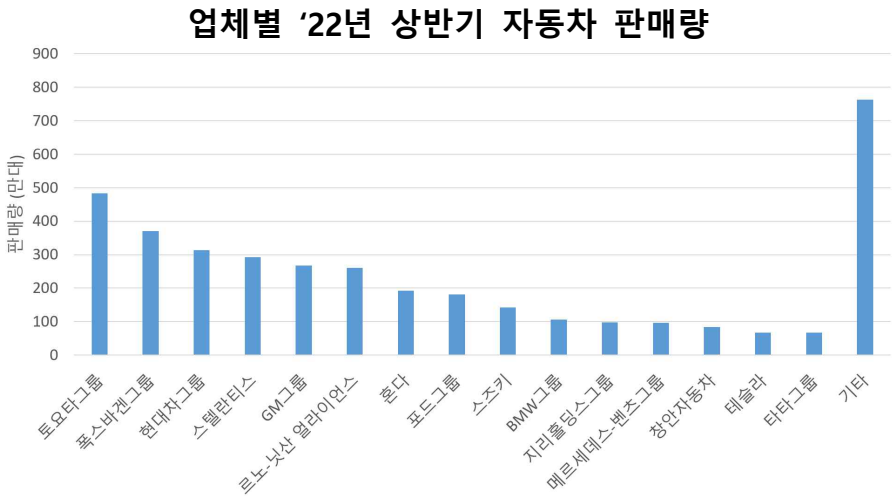
*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율: 중국(△6.5%), 미국(△17.3%), EU(△15.3%), 인도(+26.8%), 일본(△15.4%)

* 전기 대비 판매량 증가율: 중국(△9.9%), 미국(+1.6%), EU(+4.3%), 인도(+29.0%), 일본(+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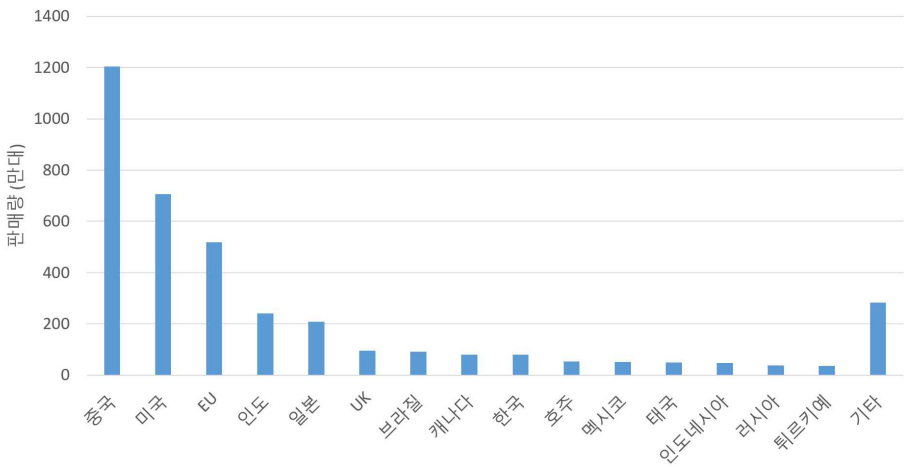
1)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승용차에 한함



자료: MarkLines



자료: MarkLines



자료: MarkLines

2.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2022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8.0% 증가한 697만대로 2020년 상반기 이후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판매량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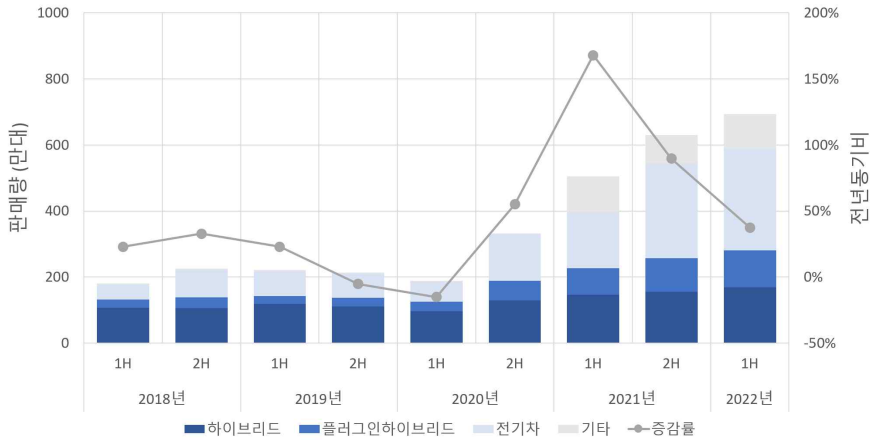
-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로 전년동기(12.1%) 대비 6.3%p 확대
- '22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 감소에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38.0% 늘어나며 증가세 유지
  - '22년 7,8월에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월 대비 40%이상 증가하여 '22년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22년 상반기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순수전기차 309만대, 하이브리드 172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11만대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84.3%, 17.2%, 38.0% 증가
  -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판매 비율은 순수전기차(44.4%), 하이브리드(24.7%), 플러그인하이브리드(16.0%)
  - '22년 상반기 수소전기차 판매량은 7,947대로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
- '22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순위는 토요타그룹(109만대), 테슬라(68만대) BYD(64만대), 현대차그룹(52만대), 폭스바겐그룹(46만대)
  - 순수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와 중국의 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BYD의 '22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77.8%, 325.0% 증가하며 다른 완성차 업체 대비 높은 판매량 증가율을 나타냄

*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율: 토요타그룹(+8.5%), 테슬라(+77.8%), BYD(+325.0%), 현대차그룹(+38.4%), 폭스바겐그룹(△3.3%)

- '22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주요 지역별 판매량 및 비중은 중국(283만대 40.7%), EU(172만대 24.6%), 미국(87만대 12.5%), 일본(75만대 10.7%), 영국(42만대 6.1%) 순으로 주요 5개 시장이 94.6%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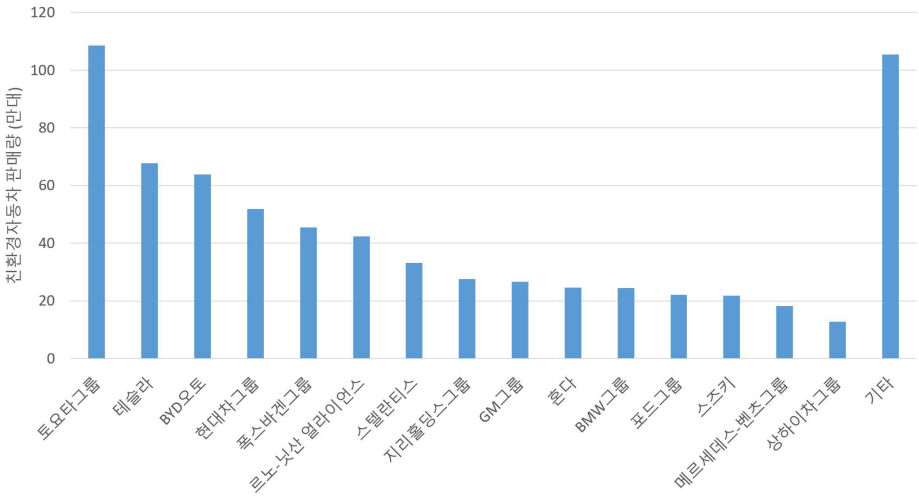
*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율: 중국(+111.4%), EU(+8.1%), 미국(+27.3%), 일본(△3.6%), 영국(+11.2%)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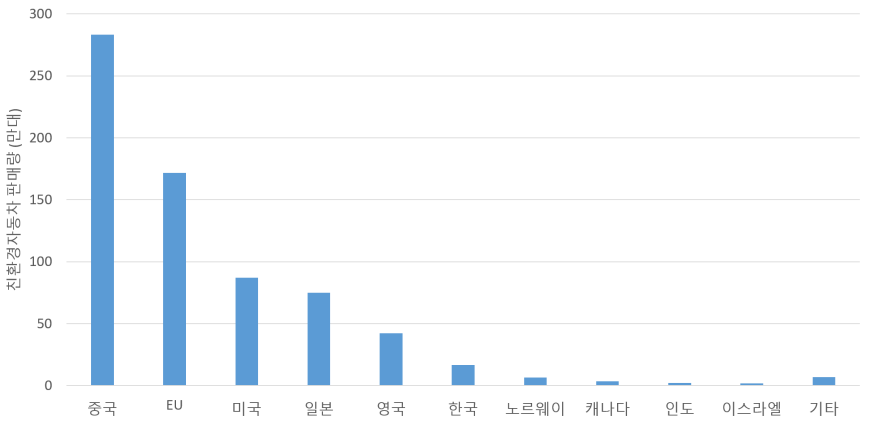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업체별 '22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자료: MarkLines

국가별 '22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자료: MarkLines

3. 주요시장 동향

(중국) 2022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6.5% 감소한 1,205만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111.4% 증가한 283만대

- (시장현황)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 텐진 등 도시를 봉쇄하면서 현지 자동차 생산공장 조업이 중단되며 상반기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봉쇄 완화에 따라 6월부터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하반기 판매량은 증가할 전망

* 중국 자동차 월평균 판매량 (만대): ('18) 234 → ('22 1Q) 217 → ('22 2Q) 185 → ('22.6~8) 244

- '22년 7월 중국은 신에너지차 세제혜택 기간 연장을 발표하여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성장은 계속 될 전망

- (친환경자동차) '22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상반기 10.4%에서 13.1%p 확대된 23.5%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22년 상반기 친환경 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비중은 순수전기차 68.4%(194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8.9%(53만대), 하이브리드 12.4%(35만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22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율은 순수전기차 109.4%,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70.4%, 하이브리드 54.0%로 순수전기차 중심의 시장 확대가 계속 될 전망

- (시장점유율) '22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시장은 폭스바겐그룹(143만대, 12.2%), GM그룹(113만대 9.6%), 토요타그룹(89만대 7.6%), 창안자동차(81만대 6.9%), 지리자동차(71만대 6.0%) 순으로 높은 판매량 및 점유율을 보임

- 반면,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BYD(64만대 22.5%), 테슬라(29만대 10.4%), GM그룹(26만대 9.1%), 토요타(26만대 9.0%), 지리자동차(13만대 4.5%) 순으로 높은 점유율 차지

- (국내기업) '22년 상반기 현대차그룹의 중국 시장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42.8% 감소한 16만대, 점유율 1.3%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

(미국) 2022년 상반기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7.3% 감소한 707만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27.3% 증가한 87만대

- (시장현황)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에 따른 자동차 생산차질로 '22년 6월 미국의 자동차(신차 및 중고차) 가격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9.7% 상승하는 등 견조한 수요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판매량은 증가할 전망

- '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가 기대되나 한국의 대 미국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친환경자동차) '22년 상반기 미국 자동차 판매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상반기 8.0%에서 4.3%p 확대된 12.3%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전망

- '22년 상반기 환경 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비중은 하이브리드 45.5%(40만대), 순수전기차 43.3%(38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9%(9만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80.3%, 48.7% 증가하였으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3.3% 감소하여 곧 순수전기차 판매량이 하이브리드를 넘어설 전망

- (시장점유율) '22년 상반기 미국 자동차 시장은 GM그룹(110만대 15.5%), 토요타그룹(105만대 14.8%), 포드그룹(94만대 13.3%), 스텔란티스(83만대 11.7%), 현대차그룹(70만대 9.9%) 순으로 높은 점유율 차지

- 미국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테슬라(27만대 31.0%), 토요타(27만대 30.6%), 현대차그룹(9만대 10.4%), 포드그룹(8만대 9.3%), 혼다(5만대 6.1%) 순으로 높은 점유율 차지

- (국내기업) '22년 상반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2.7% 감소한 70만대이나 점유율은 '21년 상반기 9.4%에서 '22년 상반기 9.9%로 확대

- '22년 상반기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의 판매량은 각각 34만대, 33만대, 3만대이며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감률은 △15.5, △11.9%, +33%

(EU) 2022년 상반기 EU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5.3% 감소한 519만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8.1% 증가한 172만대

- (시장현황) 반도체 공급난 지속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 차질 등으로 EU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부품 공급난 완화에 따라 생산량 및 판매량은 증가할 전망

- '22년 6월 EU 이사회는 '35년까지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3.5톤 이하) 판매 금지할 것을 합의하여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전망

- (친환경자동차) '22년 상반기 EU 자동차 판매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상반기 25.9%에서 7.2%p 확대된 33.0%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

- '22년 상반기 친환경 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비중은 마일드하이브리드[2] 30.2%(51만대), 순수전기차 26.2%(45만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2.4%(38만대), 하이브리드 17.4%(30만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8.3%, 19.3% 증가하였으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마일드하이브리드 판매량은 각각 13.9%, 9.1% 감소

- (시장점유율) '22년 상반기 EU 자동차 시장은 폭스바겐그룹(120만대, 23.0%), 스텔란티스(116만대 22.3%), 르노-닛산얼라이언스(66만대 12.8%), 현대차그룹(43만대 8.2%), 토요타그룹(36만대 6.8%) 순으로 높은 점유율 차지

- EU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폭스바겐그룹(26만대, 15.3%), 스텔란티스(26만대, 15.1%), 토요타그룹(20만대, 11.8%), 현대차그룹(19만대, 11.2%), 르노-닛산얼라이언스(17만대, 10.0%) 순으로 높은 점유율 차지

- (국내기업) '22년 상반기 현대차그룹의 EU 내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한 41만대로 점유율은 '21년 상반기 6.5%에서 '22년 상반기 8.2%로 확대

- '22년 상반기 현대차그룹의 EU시장 판매량의 45.1%를 차지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하며 현대차그룹의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 주도

---

2) 마일드하이브리드: 연비를 향상을 위해 작은 배터리(48V 이하)를 탑재한 자동차로 하이브리드와 달리 전기모터만으로 주행은 불가능하나 설계가 쉬운 장점이 있음

(기타)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64.6%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EU를 제외한 기타시장의 자동차 판매량은 8.0% 감소한 1,325만대,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7.6% 증가한 156만대

- (인도) '20년 인도는 팬데믹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크게 축소된 국가 중 하나였으나 수요가 회복되면서 '22년 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량 240만대 기록

* 인도 판매량(만대): ('19上) 205 → ('20上) 99 → ('21上) 190 → ('22上) 240

- '22년 상반기 현대차그룹의 인도 시장 자동차 판매량은 39만대이며 시장점유율은 16.2%으로 스즈키, 타타그룹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 차지

- (일본) '22년 상반기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4.0% 감소한 95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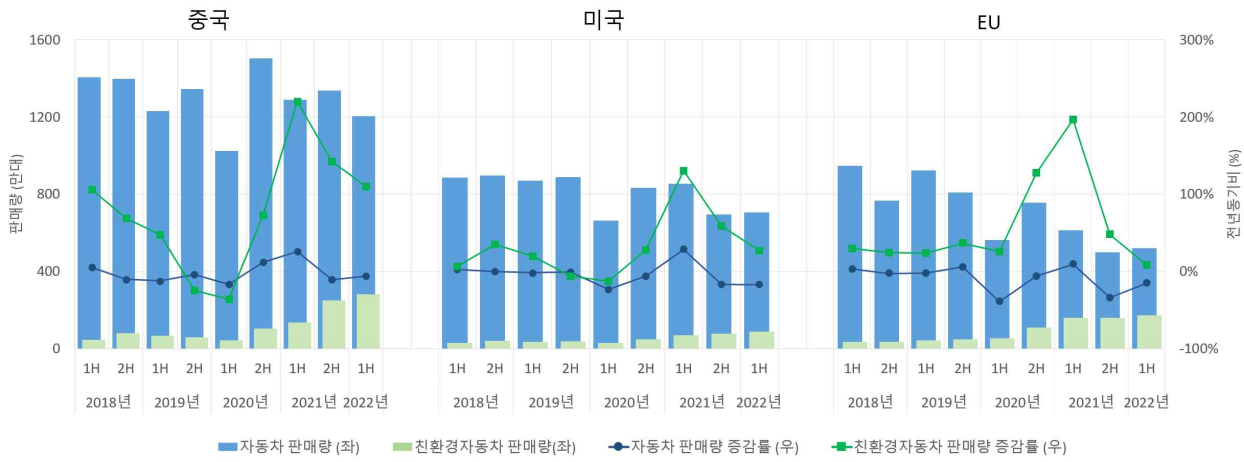
-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상향하여 일본의 전기차 시장 확대가 기대됨

* 전기차 보조금: 기존 최대 40만엔 → 85만엔

- (러시아) '22년 상반기 러시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57.5% 감소한 37만대를 기록

-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르노그룹은 철수 결정

주요 자동차 시장 판매량 추이



주: 영국의 EU탈퇴로 '21년 1월부터 통계에서 제외

자료: MarkLines

III.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1. 국내 생산 및 판매 현황

2022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한 178만대이며 판매량은 10.9% 감소한 80만대이나 반도체 공급난 완화 등으로 하반기 생산 및 판매량은 증가할 전망

- (생산) '22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178만대로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공급 차질로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전기 대비로는 8.0% 증가

- 중국의 상하이 봉쇄로 와이어링 하네스, 에어백컨트롤유닛(ACU) 등 자동차 부품 공급문제로 생산차질 발생

-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의 생산량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르노코리아는 XM3 판매호조로 본사로부터 부품 지원을 받으며 생산량 증가

* 기업별 국내 생산량(전년동기비): 현대차 82만대(△1.5%), 기아 71만대(△4.3%), 르노코리아 8만대(+47.1%), 한국지엠 13만대(△16.5%), 쌍용 5만대(+22.7%)

- (내수) '22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전년도 높은 판매량에 의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한 80만대

- '22년 상반기 내수는 전기와 유사한 판매량을 보였으나 생산량 회복에 따라 내수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한국 내수 판매량(만대): ('20上) 92 → ('21上) 90 → (`21 下) 81 → ('22上) 80

자동차 판매량 감소에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51.4% 증가한 17만대로 전기 대비로도 10.4%가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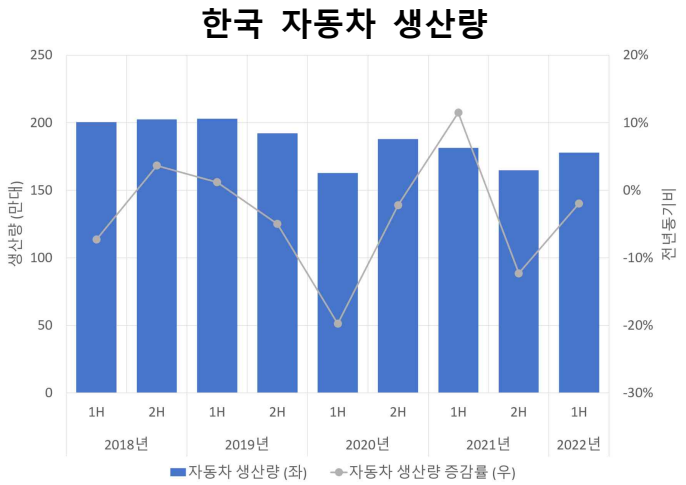
- '22년 상반기 국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7%로 전년동기 대비 8.5%p 확대

* 친환경자동차 비중(%): (`20 上) 8.5 → (`21 上) 12.2 → (`21 下) 18.5 → (`22 上)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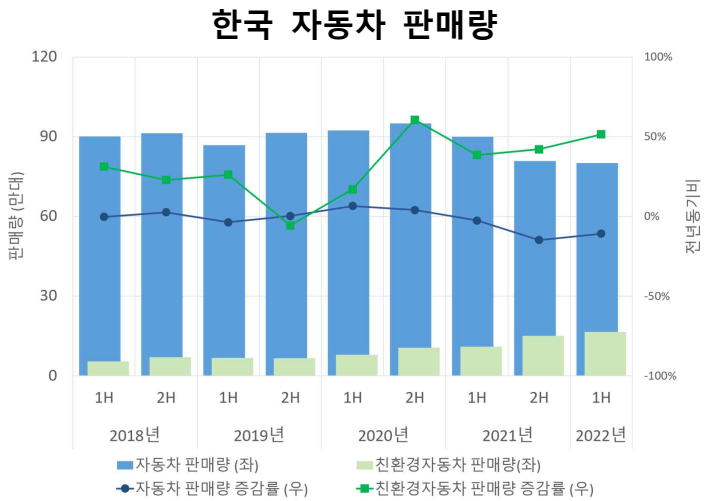
-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은 '19년 하반기 이후 계속 증가 추세

-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9만대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의 56.4%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순수전기차 6만대(36.9%), 플러그인하이브리드 0.6만대(3.7%), 수소전기차 0.5만대(3.0%) 순

- 전년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율은 순수전기차가 117.9%, 하이브리드가 38.4%로 순수전기차 판매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순수전기차 비중 확대가 예상됨



자료: MarkLines



자료: MarkLines

2. 수출 현황

2022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243억 달러이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42.6% 증가한 73억 달러이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수출 여건 악화 우려

- (수출) '22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한 107만대이며 수출단가 상승 및 친환경자동차 수출 확대 등으로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한 243억 달러

* 승용차 평균 수출단가 (만 달러): (`20 上) 1.72 → (`21 上) 1.98 → (`21 下) 2.09 → (`22 上) 2.09

- 견조한 자동차 수요로 '22년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기 대비 6.4%가 증가하여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IRA 등 수출 여건 악화 우려

-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37.6% 증가한 25만대이며 수출액은 42.6% 증가한 73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 기록

- '22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수출대수는 전체 자동차 수출대수의 23.5%를 차지하였으며 '21년 상반기 17.3%에서 비중 6.2%p 확대

- '22년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수출액은 자동차 수출액의 30.0%를 차지하였으며 '21년 상반기 21.7%에서 비중 8.3%p 확대

* 친환경자동차 수출액 비중(%): (`20 上) 18.4 → (`21 上) 21.7 → (`21 下) 28.6 → (`22 上) 30.0

- (지역) '22년 상반기 대 북미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대 유럽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5.1% 감소

* 대륙별 수출액 비중: 북미(46.0%), 유럽(24.1%), 중동(8.9%), 대양주(7.7%), 아시아(7.3%), 중남미(4.8%), 아프리카(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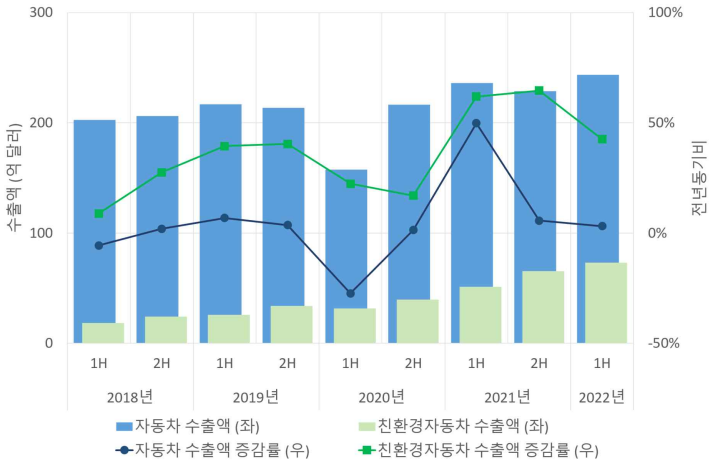
- '22년 상반기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5.9% 감소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상반기 5.6%에서 '22년 상반기 1.8%로 축소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22년 8월 16일 이후부터는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국 내 판매되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으로부터 수출되고 있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

- 세제 혜택 대상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순수전기차가 한국의 대 미국 자동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향후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

- 유럽지역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자동차 수요 둔화가 우려됨

한국 자동차 수출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3. 국내 완성차업체 동향

(현대차 그룹) 현대와 기아는 반도체 공급난 등 부품 공급 차질에도 고부가 차종 판매 확대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22년 상반기 매출은 각각 14.9%, 15.2% 증가한 66조 2,985억원, 40조 2,332억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원/달러환율: (`20 1H) 1,207.1 → (`21 1H) 1,117.7 → (`21 2H) 1,170.5 → (`22 1H) 1,232.9

- (현대)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도 '22년 상반기 매출액은 14.9% 늘어난 66조 2,985억원, 영업이익은 38.6% 증가한 4조 9,087억원으로 영업이익률 7.4% 기록

- '22년 상반기 현대차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2.3% 감소한 177만대로 중국 시장 판매량이 감소하며 전기와 유사한 판매량 유지
- 판매량 감소에도 친환경자동차 및 고부가차량 판매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신규 전기차 출시 예정으로 성장 기조 유지 기대
- '22년 3월 연간 생산능력 15만대(향후 25만대)의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준공으로 아세안 시장 판매량 확대 기대

- (기아) '22년 상반기 기아의 매출액은 15.2% 늘어난 40조 2,332억원이며 영업이익은 49.8% 증가한 3조 8,405억원으로 영업이익률 9.5% 기록

- 22년 상반기 기아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4.8% 감소한 137만대이나 전기 대비로는 3.0%가 증가하며 판매량 확대 기대
- 기아는 쿠팡 및 CJ대한통운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물류 운송 혁신을 위한 발판 마련

(기타) 2022년 상반기 반도체 공급문제 등으로 한국지엠은 내수 및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쌍용차와 르노코리아는 각각 코란도 및 XM3 해외 판매호조로 수출 증가

- (한국지엠) 생산량 감소에 따라 내수 및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47.1%, 41.6% 감소한 2만대, 0.3만대

- 반면, 한국지엠의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16.8%가 감소한 12.5만대이나 전기 대비로는 68.6%가 증가한 수치로 향후 판매량 증가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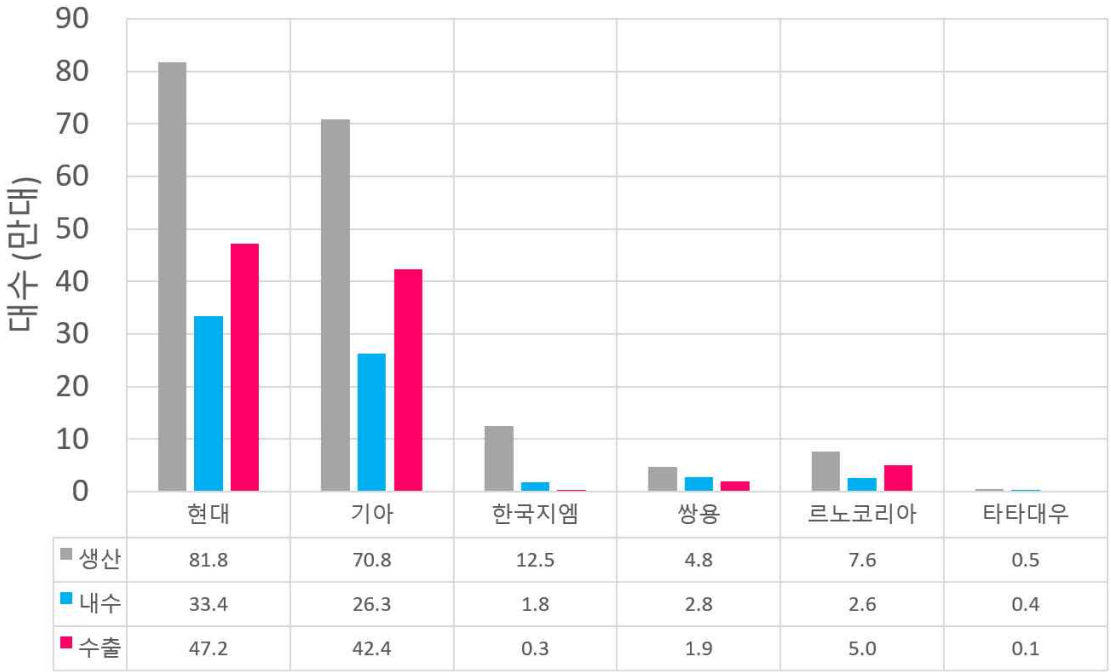
- (쌍용) '22년 상반기 쌍용자동차는 내수 및 수출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5.8%, 43.7% 증가한 3만대, 2만대를 기록하며 매출액은 23.8% 증가한 1조 4,218억원, 영업손실은 66.8% 줄어든 591억원 기록

- 쌍용차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동기 대비 22.7%, 전기 대비 11.6% 증가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내수 및 수출 증가세 기대
-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영업손실 규모는 '18년 상반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새로운 모델 토레스 출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
-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M&A 계약 해제 후 '22년 6월 KG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선정

•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의 내수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9% 감소한 2.6만대, 수출량은 84.3% 증가한 5만대를 기록하며 수출 중심의 성장이 이어질 전망

- 르노코리아의 '22년 상반기 생산량은 XM3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7.0% 증가한 7.6만대로 전기와 비슷한 생산량(7.7만대) 유지
- '22년 3월 르노삼성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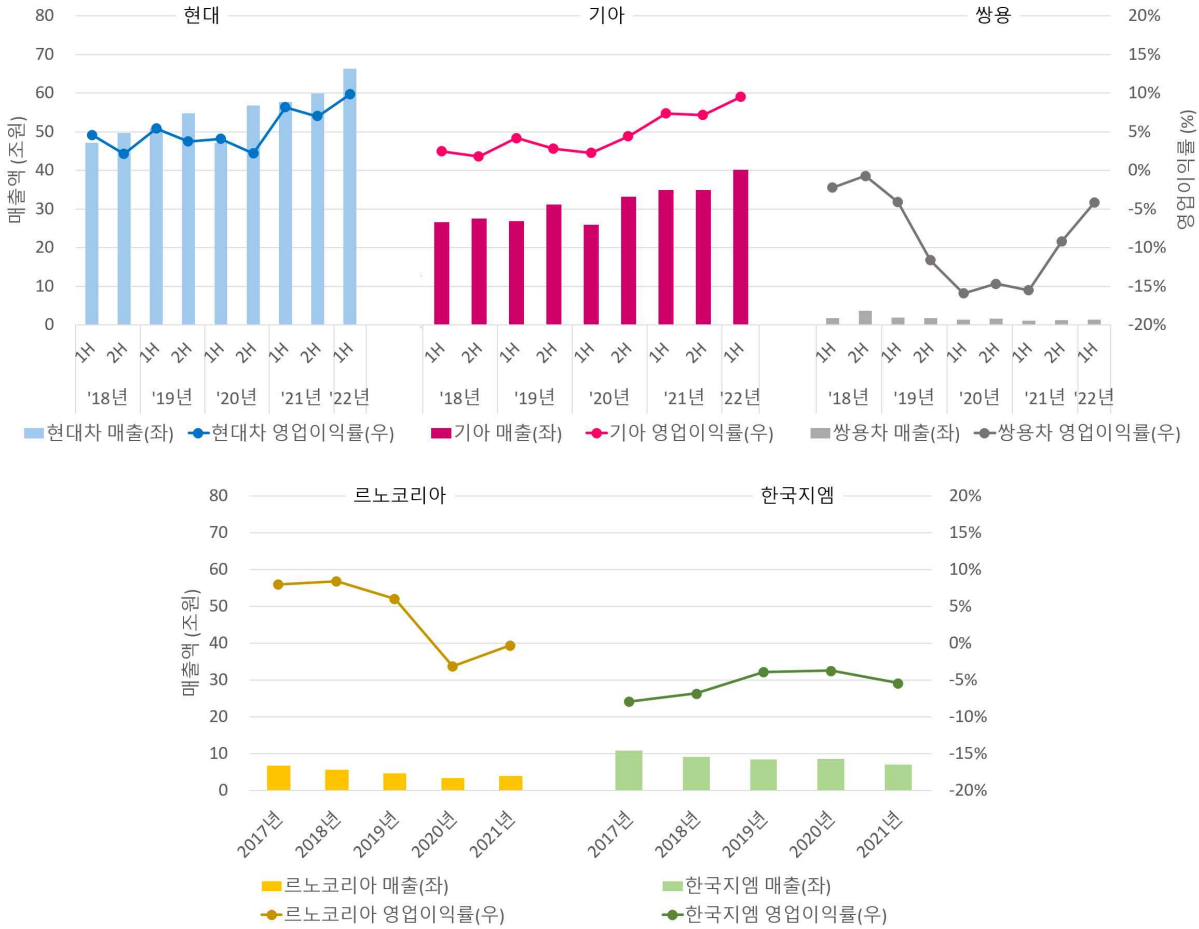
'22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판매량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코리아	타타대우
생산	81.8	70.8	12.5	4.8	7.6	0.5
내수	33.4	26.3	1.8	2.8	2.6	0.4
수출	47.2	42.4	0.3	1.9	5.0	0.1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국내 완성차 업체 매출 및 영업이익률



자료: 전자공시

Ⅳ. 시사점 및 전망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공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전망

- PC, 스마트폰, TV 등의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PC, TV등 수요 감소에 따라 파운드리 주문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

- 생산 측면에서 자동차 수요 둔화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로 이어질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네온가스·팔라듐 등 우크라이나산·러시아산에 대한 소재 및 부품의 공급처 다변화 및 가격 상승 등 리스크 관리 필요

-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가스의 수입가격은 '22년 1월 122$/kg에서 8월 2,775$/kg으로 연초 대비 약 23배 증가

* 전세계 네온 생산량 중 우크라이나산 비중: 70%, 전세계 팔라듐 중 러시아산 생산량 비중: 40%

중국의 친환경자동차 세제혜택 연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나 국내 완성차 업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의 지원정책 연장으로 중국 친환경자동차 업체의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며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BYD, SAIC, Xpeng, NIO 등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 '22년 상반기 중국은 전 세계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의 40.5%, 순수전기차 판매량의 62.7%를 판매하는 세계 최대 시장

- BYD의 순수전기차 모델 한, 당, 아토는 4분기부터 유럽 소비자에게 인도될 계획으로 중국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라 유럽에서 친환경자동차 경쟁이 심화될 전망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완성차 업체당 20만대로 제한하던 세액 공제 수량을 해제하여 테슬라, GM이 혜택을 볼 예정
- 보조금 지급 조건 중 원산지 규정(미국 내 생산 등) 조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조지아 생산공장 완공 시기를 '25년에서 '24년 말로 앞당기는 등 대응을 하고 있으나, 약 2~3년의 공백이 발생
-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품 단위 수출 후 미국에서 조립하는 녹다운(Knock Down) 방식 등도 고려 필요
- 다만, 향후 전기차 가격 상한 조건*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5.5만 달러 이상의 승용차, 8만 달러 이상의 SUV 및 픽업트럭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